



앨리스 먼로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 <뿔>

책을 읽을 때 배경이 된 문화나 정서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에게 이 책이 그랬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소설집이라는 게 마음에 끌려 읽기 시작했지만 책 장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사소한 일상을 그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아 단편이 갖는 미덕은 찾아 볼 수 없고, 개연성이라고 전혀 없는 일탈, 불장난 같은 일탈을 마치 불꽃 뛰는 뜨거운 사랑이라도 나눈 것처럼 몇십여 년간 아련한 주제로 간직하는 모습들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교환교수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3년간 살다온 지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곳에서는 물건을 하나 사려 슈퍼에 가려고 해도 차로 한 시간은 가야하는 데, 그나마 남편이 데려다 주지



단편 '물 위의 다리'에 나오는 아내는 한때 저녁모임에 쓰러고 구워놓은 생강 과자를 남편이 먹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남편에게는 그냥 생강 과자였지만,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는 아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의 가출사건은 버스가 오지 않아서, 혼자가 되면 버스승강장에 낙서나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등 여러 심경의 변화로 남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삶, 그 쓸쓸함에 대해

않으면 갈 수도 없어 생활 자체가 단조롭고 외로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주인공들처럼 단 한 번의 일탈을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던가.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이나 노년의 부부들이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다. 특별한 사건이라면 늦은 결혼이나 나이가 가져다준 종 양이나 치매 같은 중병 정도라고 나 할까. 그러나 결혼이나 중병은 중요하지 않다.

'독자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 아니라,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음악으로 찾은 꿈, 그 꿈의 화음이 펼쳐집니다

음악으로 꿈을 찾는 이들이 만들어 내는 화음은 감동적이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배우면서 소통과 협력, 함께 나누는 삶을 배우기 때문이다.

지역 다문화 가정과 아동·청소년들로 꾸려진 소규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1년동안 배운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감사음악회를 마련한다.

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광산문예회관에서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연다.

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음악나눔 교육봉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창단한 다문화 가족 단위 오케스트라.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17개국의 다문화 가정 가족 80여명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다문화 M오케스트라 연주회로 신일호씨가 객원지휘를 맡는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1번 2번',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이 연주된다. 소프라노 유형민씨가 우정 출연해 연주에 맞춰 벨리스케스의 '베사메 뮤초'를 들

려준다.

2부는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맥코이의 '아프리칸 심포니', 로시니의 세발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팔방미인', 아당의 '거룩한 밤' 등을 들려준다. 바리톤 김치영씨와 클래식 기타 서만재, 토키도 준고, 빛고을 다문화어린이중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석 1만원이며 다문화 가족석은 초대다. 문의 010-3625-5115.

악기를 통해 협동과 이해, 책임을 배우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도 15일 오후 5시 남구

문화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엘 시스테미'를 표방하며 시행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전국 문화재단과 공공예술기관 등이 지역 오케스트라 등과 결합,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함께 음악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지난 5월부터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40여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은 바이올린과 목관악기, 비올라, 금관악기, 첼로와 더블베이스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이날 연주회 페퍼토리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 파헬벨의 '개논' 등이다.

음악감독 신정문씨가 지휘를 맡고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가 협연한다. 고흥 출신으로 독일 카셀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텍사스 주립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씨는 이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670-501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17개국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된 다문화 M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서정주 미발굴 수필 발견

1947년작 '1944년 경의 이야기'



미당 서정주 (1915~ 2000)의 미발굴 수필이 발견됐다.

계간 문예고양지 '연인' 겨울호 (통권 20호)에 실린 '1944년 경의 이야기'는 미당이 1947년 '민주경찰' 9월호에 발표한 글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노작가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소녀처럼 로맨틱하다. 대부분의 여주인공들이 상대보다 괜찮은 남자들과의 일탈을 즐기거나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삶의 결이란 것을 생각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나무의 나이다 처럼 살아온 기록에 따라 다르게 생겨났을 삶의 결을 들여다보았다는 느낌이랄까.

수필은 미당이 학창 시절 젊은 혈기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벌미가 돼 제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글은 서지학자인 김종윤 씨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발견했다. /박성천기자skypark@

독일서 활동 호남예술제 출신 바리톤 정용선씨

"저무는 한해 아름다운 선율로 만나요"

광주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 초청… 12일 문예회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합평 출신 바리톤 정용선 (49)씨는 올해로 음악 인생 30년을 맞았다. 남들보다 늦게 성악을 시작한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3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마치고 독일 도르트문트 음악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게 23년전이다.

1994년 ~1996년까지 도르트문트시립오페라극장 솔리스트를 거쳐 지금은 오페라극장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 트라비아타' 등 40편의 오페라에 주연 및 조역으로 출연했고, 마흔 두차례 독창회를 여는 등 바빠 움직여왔다.

특히 그는 전공인 성악뿐 아니라, 독일 아카데미 합창단, 재독 한인연합합창단 등의 지휘자로도 경력을 쌓아가는 중이다. 또 독일에서 아가페월드 오페라단을 창단, 창작 오페라 '요셉' 등을 공연, 오페라 제작자로도 활동중이며 재독코리아 싱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등도 맡고 있다.

그가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초청돼 이를다운 화음을 선사한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블로바극립방송교향악단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의 '메시아'를 비롯해 '경복궁 탄령',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용선곡 'Jesus, our glorious sun', 스테판 아답스의 '거룩한 성' 등 을 만날 수 있다.

"고향에 돌아와 프로 단체인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 감사하죠. 연습을 통해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습니다. 이번 연주회가 합창단의 역량과 기량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씨는 "기회가 닿는다면 시립합창단을 독일에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현대하우징(광주·전남총판)
남구 방림동 524-1
한미자연마루, 한미데코타일
잉드레리김벽지
대표 백종구
☎(062)654-2299

바른한의원
북구 매곡동 44-6번지
한방·의료·크리닉전문
대표 박소영
☎(062)575-0124

가디언엔젤스
학동 628-1번지 휴먼시아입구
병원 동행 서비스/ 등교/ 등하원 서비스
☎(062)222-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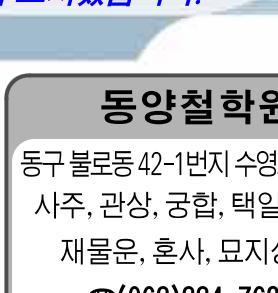
바위섬횟집
상동 1346번지 호반3차@정문건너 멋자골목
각종전문점 참석어우비기, 침돌우비기, 허전예약
우리지리매운탕, 초밥
(연말예약받습니다)
☎(062)372-4224

부라더미싱(광주대리점)
북구 누문동 205-2번지 복개상가 건너편
부라더 미싱 전문점
대표 오경일
☎(062)524-1444

삼각그린이발관
북구 삼각동 그린티운@상가 108호
염색등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062)574-6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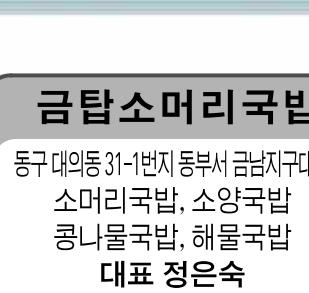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42-1번지 수영노인당옆
사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
☎(062)224-7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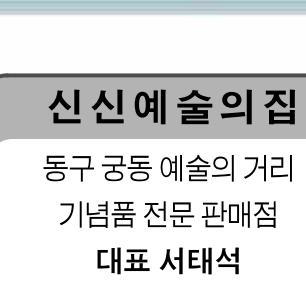
금탑소머리국밥

동구 대의동 31-1번지 동부서 금남지구앞
소머리국밥, 소양국밥
콩나물국밥, 해물국밥
대표 정은숙
☎(062)673-7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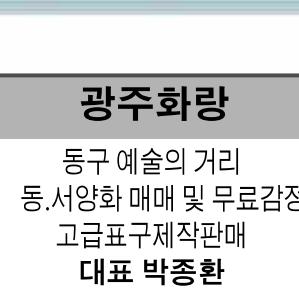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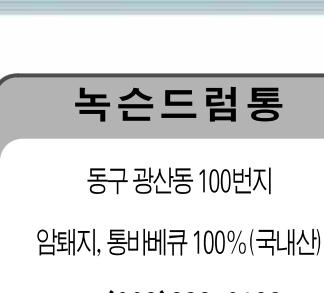
광주화랑

동구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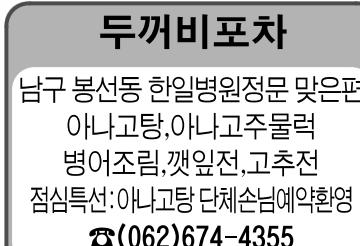


녹슨드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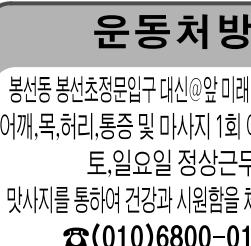
동구 광산동 100번지
암퇘지, 통버찌 100% (국내산)
☎(062)222-0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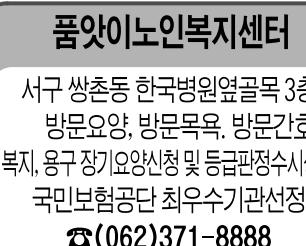
두꺼비포차
남구 봉산동 한일병원정문 맞은편
아나고탕, 아나고주물럭
병어조림, 깻잎전, 고추전
점심특선: 아나고탕 단체손님 예약현행
☎(062)674-4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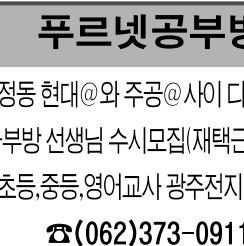
운동처방
봉산동 봉산초등학교 대신@앞 미래미술교습소옆
어깨, 목, 허리, 풀증 및 마사지 1회 이용시 1만원
토, 일요일 정상근무
마사지를 통하여 건강과 시원함을 체험해보세요
☎(010)6800-0182



풀잇이노인복지센터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앞골목 3층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 용구장기요양선정 및 등급평정수시상당
국민보험공단 최우수기관선정
☎(062)371-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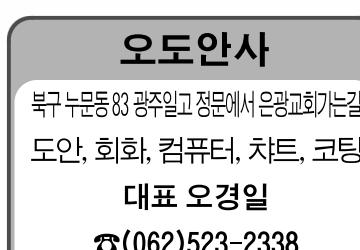
푸르넷공부방
회정동 현대@와 주공@사이 디스털 1층
공부방 선생님 수시모집(재택근무가능)
초등, 중등, 영어교사 광주전지역 가능
☎(062)373-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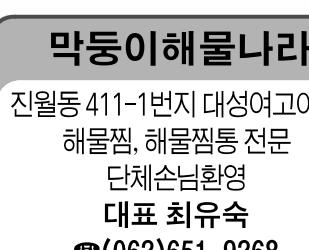
우담식육식당
오치동 862-43번지 삼익@102동옆
기정식 백반전문
☎(062)265-5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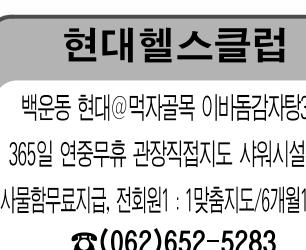
오도안사
북구 누문동 83 광주일고 정문에서 은광교회가는길
도안, 회화, 컴퓨터, 카트, 코팅
대표 오경일
☎(062)523-2338



막동이해물나라
진월동 411-1번지 대성여고아래
해물찜, 해물찜통 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최유숙
☎(062)651-9268



현대헬스클럽
백운동 현대@먹자골목 비빔김치탕 3층
365일 연중무휴 관리직접지도 사무시설안전
사무화무료지급, 전화문의 1·1맞춤지도/6개월10만원
☎(062)652-5283



예림화방문구센터
궁동 55 중앙초교길 예술의거리
디자인아트, 동양화재료, 건축모형재료
사무용품, 제도용품, 각종석고
각종종이류, 문구재료등
☎(062)222-8143